

SKK BUSINESS SCHOOL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소식지 2023.01 Vol.8



Contents

3

경영대학
FOCUS NEWS

동문회 소식
기부금 소식

11

교육프로그램별
NEWS

경영학과&일반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경영전문대학원(EMBA)
경영대학원(IMBA)
핀테크MBA
W-AMP 최고경영자과정

36

FACULTY
NEWS

교수 동정
신임 교원소개

44

DONATION
NEWS

51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발행일

2023년 1월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주소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발행인

안희준

이현구 회장, '중봉학술연구기금' 3억 원 기부

이현구 회장(경영68, 라까사웍스(주))은 12월 13일(화) 신동렬 총장을 초청하여 라까사호텔 6층 로프트하우스에서 「중봉학술연구기금」 3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기금전달식에는 신동렬 총장, 안희준 경영대학장, 지성우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하였으며, 기부자 측에서는 이현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대학 동문회 김동필 회장((주)넥스팜코리아), 김익래 명예회장(선명회계법인), 신상훈 자문위원(前)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송인만 자문위원(경영학과 명예교수), 임경윤 위원(BIZ&TECH, ㈜한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현구 회장은 기념사에서 “대학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지원기금을 기부하게 되었고 이번에 3억 원을 더해 총 7억 원이 되어 보람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해서 기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신동렬 총장은 답사를 통해 “코로나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부를 결심해 주시고 모교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경영대학이 우수한 교수와 연구자를 유치하여 수준 높은 연구를 지속하고 학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금전달식에 앞서 임기를 마치는 신동렬 총장에 대한 편액 전달식과 안희준 경영대학장에 대한 기념품 증정식이 진행되었다.



2022년 여름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성료

2022년 여름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이 지난 2022년 8월 20일(토) 11시, 본교 600주년기념관 지하2층 새천년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졸업생, 교수, 학부모 등이 다 함께 모여 진행됐으며, 학사 204명, 석사 184명 등 총 388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교기입장을 시작으로 개식사,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경영대학장 축사,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축사, 공로상/성적우수상/학생 성공상 시상이 진행되었고 학사 및 석사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전원 릴레이 악수가 이어졌다.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경영대학 졸업생 모두 ‘학생성공’과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영전문가가 되길 기원한다”며, “졸업생들이 학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지금까지 배운 경영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날 졸업생들의 학위수여를 축하하기 위해 경영대학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부모 및 졸업생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모든 교수진과 졸업생들은 자리에 일어나 참석한 가족과 축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2회 중봉(中峰)동문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 6월 13일(월), 제2회 중봉동문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2021년 12월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에서는 이현구 회장(경영학과 68, 라까사웁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형우 라까사그룹 총괄대표가 대리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희준 경영대학장, 이종은 부학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 이증상 경영대학동문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중봉동문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고다경, 박지원 임도건, 최아진(이상 경영학과), 유아영(글로벌경영학과) 총 5명이다. 중봉동문장학생의 지원 기준은 학부 2, 3학년 재학생 중 직전 2학기 취득학점이 각각 12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재학 중 평점평균이 4.0이상이었으며, 경영대학 기금운영위원회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였다.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어렵고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여 선발된

학생들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기며 이현구 회장님의 뜻에 따라 보답할 수 있도록 모두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라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이현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아영(글로벌경영학과)학생은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베풀 줄도 안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배님의 뜻을 이어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약속한다”며 장학생 대표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형우 총괄대표가 이현구 회장의 소감을 전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선배로서 3가지 조언을 전하겠다. 먼저 무엇을 하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둘째, 거창한 목표보다는 실천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세운 후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며 조언했다.



경영원, '신세계푸드 FL(Future Leader)아카데미' 입학식 진행

지난 6월 24일,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에서 신세계푸드 FL(Future Leader) 아카데미 입학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세계아이앤씨와 성균관대 경영대학 경영원이 공동 주관하여, 신세계푸드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리더에게 필요한 핵심지식, 스킬, 마인드 교육과 과제해결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본 과정은 신세계푸드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최근이슈 및 사례, 푸드/리테일 분야 산업동향 및 이슈,



DT(Digital Transformation)트렌드 전략, Biz시뮬레이션 등 이론과 사례, 실습기반 융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BK21 핀테크교육연구단, 산학공동연구포럼 성황리에 개최

- 핀테크교육연구단 산학공동연구포럼 성황리에 개최
- 많은 학계와 핀테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

본교 BK21 핀테크 교육연구단(단장 송교직 교수)은 8월 25일 (목),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금융정보, 블록체인,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2022년 산학공동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본교 핀테크 교육연구단과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가 기획하여 개최하였으며, 50여명의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포럼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발전 전망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포럼의 발표와 토론에는 본교 핀테크융합전공 임병화, 김대진 교수도 참여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당국자는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발표도 진행하였다.



경영관 지하1층 학부열람실 새단장 개관

학술정보관(관장 최형기)이 경영관 지하1층의 학부열람실을 새롭게 단장하여 8월 30일(화)에 개관하고 개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학술정보관은 학부열람실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1월 총학생회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부열람실 A는 스터디 카페 형태로, 학부열람실 B는 집중형 독서실 형태로 구분하고 전 좌석에는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였다.

이날 개관식에는 신동렬 총장, 주영수 상임이사, 조준모 (인) 부총장, 박선규 (자)부총장, 권기현 대학원장을 비롯한 교무위

원들과 인사캠 총학생회장단이 참석하였으며, 학부열람실 개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서의 첫 장에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직접 서명을 한 후 서가에 꽂는 기념 배가(Book Shelving Ceremony)도 이루어졌다. 이 책들은 실제로 학부열람실 서가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부열람실 내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새롭게 개관한 학부열람실은 학부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매일 06:00부터 24:00까지이다. 8.31.(수)부터 9.4.(일)까지 자율 좌석제 시범운동을 거쳐 9.5.(월)부터 좌석 발권제로 정상 운영한다.



**경영대학 회계학 박사과정생,
3명 교수임용 및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회계학교수)
채용 등 연이은 교수 임용 화제**



왼쪽부터 남기만, 전경민, 황지희, 홍시운

성균관대 경영대학(학장 안희준)에서 최근 4명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창원대(남기만 원우), 전북대(전경민 원우), 한남대(황지희 원우) 등 국내 거점국립대 교수임용, 국세공무원교육원(회계학교수) 채용(홍시운 원우)되는 등 잇달아 지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먼저 경영대학 석박사과정을 지낸 남기만 원우는 지난 2022년 3월에 국립창원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고 있다. 남기만 원우는 “성균관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의 지도하에 배움을 받으며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어렵듯이 그려볼 수 있었다”며 “교수로서 갖춰야할 여러 중요한 덕목들이 많지만 학생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였다.

2018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경민 원우는 올해 9월부터 국립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전경민 원우는

“박사학위 취득 후 최종 임용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경영대학 회계 전공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2년 2월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황지희 원우 역시 올해 9월부터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로 임용 확정되어 2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황지희 원우는 “학생들에게 조력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는 교수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홍시운 원우는 2022년 7월에 국세공무원교육원 회계학교수로 채용되었다. 홍시운 원우는 “이 곳에서 신규임용자(7급, 9급)와 재직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교재를 집필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며 “지금까지 주로 학부수업을 담당하며 이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다면 앞으로는 실무에 비중을 둔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세부분야와 회계의 관계를 다루는 저의 연구분야에서도 연구범위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이은 교수임용 소식에 경영대학 이종은 회계전공주임교수는 “이번 연이은 임용소식은 본인들의 의지,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전공 교수님들의 관심과 연구협업, 그리고 연구중심대학 선도를 목표로 하는 경영대학 및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로서 첫발을 내딛는 우리 박사졸업생들의 건승을 기원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남기만 박사(회계학 전공),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임용 관련 인터뷰



전경민 박사(회계학 전공),
국립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임용 관련 인터뷰



황지희 박사(회계학 전공),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임용 관련 인터뷰



홍시운 박사(회계학 전공),
국세공무원교육원 취업 관련 인터뷰

경영대학 학생, 성균관대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절반 가까이 차지...

우리대학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절반 가까이를 경영대학 학생들이 차지했다. 올해 5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성균관대는 116명을 배출하여 고려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기록했다. 116명 중 경영대학(재학 및 졸업생 기준) 합격인원은 54명으로 절반에 가깝다. 지난 2021년에는 총 합격자 105명 중 54명, 2020년에는 총 합격자 99명 중 59명이 모두 경영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기록한 바 있다.

이렇게 매년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비결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반(송회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강의 수강 지원, 모의고사 시행 및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합격생 선배 멘토링 운영 등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반 지도교수인 정문기 교수(경영대학 회계 전공)는 지난 2017년에 ‘공인회계사반 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부(약정 5년)한데 이어 2022년에도 추가로 3천만원을 기부

(약정 3년)한 바 있다. 정문기 교수는 “선배로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을 돕고 싶다. 더 많은 학생들이 공인회계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며 뜻을 밝힌 바 있다.

년도	성균관대 최종합격자(명)	합격자 중 경영대학의 학생(명)	점유율(%)
2022년	116	54	46.5
2021년	105	54	51.4
2020년	99	59	59.5
2019년	86	57	66.2
2018년	75	46	61.3

〈최근 5년간 본교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 및 합격자 가운데 경영대학의 학생 수〉



〈2017년 공인회계사반 발전기금 수여식 당시 모습〉

BK21핀테크교육연구단 (단장:송교직 교수) “Global AI Finance Research Conference” 싱가포르에서 개최

BK21 글로벌 핀테크 인재양성 교육연구단(단장: 송교직 교수)은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와 공동으로 12월 12-13일 싱가포르 팬퍼시픽호텔과 NUS 캠퍼스에서 “2022 Global AI Finance Research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핀테크 분야 최고의 국제학회로 자리잡은 이 학회에는 전 세계에서 약 120명의 학자들이 현장 참가를 하며, 2대1 이상의 경

쟁률을 뚫은 34개의 핀테크 분야 최신 연구가 발표되었다. 학술 논문 발표 외에도 금융 현장 전문가의 발표와 Tutorial도 진행되었다.

올해 컨퍼런스 기조 연설은 시카고 대학의 Dacheng Xiu 교수와 조지아텍의 Sudheer Chava 교수가 맡았으며, “NLP in finance”와 “The statistical limit of arbitrage” 주제로 연설을 진행하였다. 한편 핀테크융합전공 석·박사과정생 20명은 싱가포르에서 학회 참가, NUS NLP Tutorial 및 Macquarie Bank Ltd/Singapore 방문 등 3박4일간의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윤서영 학생(핀테크융합전공 석사과정생), 미국 ‘Campus Analytics Challenge’대회 수상

핀테크융합전공 석사과정생 윤서영 학생(U of SC, MS in Business Analytics 복수학위)이 미국 Wells Fargo 은행에서 주최한 ‘Wells Fargo Campus Analytics Challenge’대회에서 수상하였다. 이 대회는 미국 전체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윤서영 학생은 8명의 최종 후보자들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윤서영 학생은 ‘Determine Transaction Categories Using Machine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주제로 참여하였으며, 대회를 통해 금융 산업에서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을 경험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였다.



현재 윤서영 학생을 포함하여 핀테크융합전공 석사생 5명이 U of SC에서 MSBA 복수학위 진행중이며, 2023년 1학기에 1명이 복수학위 파견 예정이다.

윤서영 학생, 미국 ‘Campus Analytics Challenge’대회 수상 관련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2021년 봄학기에 입학하여 현재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복수학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미국 Wells Fargo Campus Analytics Challenge 대회에서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핀테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한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의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했고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는데, 좋은 결과를 내게 되어 보람됩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미국 Wells Fargo은행에서 주최한 ‘Wells Fargo Campus Analytics Challenge’대회는 무엇인가요?

Wells Fargo는 미국의 4대 상업은행 중 하나로 매년 미국 전체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머신러닝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자체 데이터를 제공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금융 산업 현장에서 data scientist 역할을 경험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윤서영 학우님이 연구한 Determine Transaction Categories Using Machine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2년 대회 주제는 머신러닝 및 자연어처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은행 거래 데이터(bank transaction descriptions)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거래(bank transaction)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Training data는 총 10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거래 내역은 한 문장 정도 길이의 데이터로 거래 일시, 장소, 브랜드, 금액, 판매자 코드(MCC)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이용하여 거래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특징을 추출한 뒤, 선택된 feature 및 meta data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류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발한 모델을 적용하여 레이블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류하고, 짧은 논문 형식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은행 거래 데이터는 일반적인 텍스트에 비해서 매우 짧기 때문에, 기존의 text processing 및 feature extraction 방식은 충분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데이터 성격에 잘 부합하는 새로운 방법/조합의 text processing을 찾는 것이 본 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Data scientist로서 금융 기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돕고,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전략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금융 기관의 디지털 전환 및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STEM 계열 여성 리더로서 저변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핀테크융합전공에 관심있는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내에 많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있지만, 그 중 도메인이 확

실하고 해외 대학원과 복수학위를 진행하는 곳은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이 유일합니다. 재무, 통계,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여러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공계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 또는 재무 분야가 처음이신 분들 모두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학위를 통해 미국에서의 커리어도 고려할 수 있어 기회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추천드릴 만한 점입니다. 핀테크에 관심이 있고 금융 분야로 도메인을 확실히 정하셨다면 꼭 도전하셔서 성공적인 전공 전환/강화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호주 Monash Business School Global Executive MBA 방문단, 본교 경영대학 방문

지난 10월 17일(월)~10월 21일(금) 5일간, 호주 Monash Business School Global Executive MBA 방문단 50명(학생46명(5명은 온라인 참여), 교수2명, 실무자2명)이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하였다.

방문 첫날에는 Joseph Kim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용준 교수의 Korean Government-Chaebol Relationships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어 문철우 교수의 Korean Economy & Society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18일(화) 오전에는 문철우 교수의 Corporate Strategies for Entering the Korean Market 특강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호주 대사관을 방문하여 Catherine Raper 주한 호주 대사관 투어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19일(수) 오전에는 조성희 교수의 Korean Organisational Culture 특강이, 오후에는 심수옥 교수의 Global brand - Samsung Electronics Case Study가 진행되었으며, 20일(목)에는 김영한 교수의 The Face of Risk: CEO facial masculinity and firm risk 특강이 이어졌다. 마지막날에는 MBA 학생들의 Group Presentations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 교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양교 간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제4회 성균경영학술제 행사 성황리 마무리

지난 11월 2일(수) 경영대학 행정실과 학생회 공동주관으로 <제4회 성균경영학술제>가 개최되었다. 성균경영학술제는 학문 연구를 통해 학생들 간 소속감 제고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경영학 세부전공별로 진행되는 학술제 마련의 필요성 대두, 학문의 실천적 적용 기회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8월 30일 ~ 9월 4일 동안 사전에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구보고서 심사를 통해 최종 발표 팀을 선발하였으며 최종 발표 및 심사는 11월 2일 13시에는 회계, 16시에는 재무/매니지먼트, 19시에는 경영정보 등 전공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심사에는 회계전공에는 최아름 교수, 재무전공에는 오종민 교수와 박흥주 교수, 매니지먼트전공은 김영상 교수와 김안드레아 교수, 경영정보전공은 장영봉 교수와 김용석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성균경영학술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오종민 교수는 “우선, 바쁜 학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과 학술제 준비를 병행해 준

학생들의 노력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최근 시의 적절한 재무 관련 주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회계전공에는 이규원, 장서영, 황재영(이하 경영학과)팀, 재무전공에는 김지원, 김준영(경영학과)팀, 매니지먼트전공에는 김미리(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에는 이해진, 고남욱, 신지용, 차영민(경영학과)팀이 수상했다. 성균경영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의 대외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함양하며 스스로의 관심 분야와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Dean's list 수여식 개최

2022-1학기 경영대학 Dean's List 수여식이 11/25(금) 오후 2시 경영관 503호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Dean's List는 평점 4.4이상, 특정 기준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1학기에는 경영학과생 108명, 글로벌경영학과생 48명으로 총 156명이 선발되었다.

이날 안희준 경영대학장, 이종은 부학장(경영학과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매해 Dean's List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낮이 익은 얼굴들이 보이는데 주변 친구들에게도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라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셔도 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단순히 학점을 높이기 위해 쉬운 과목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수업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진 경영학과 학생과 김지형 글로벌경영학과 학생이 각각 대표로 증서를 수여받았다. 김명진 학생은 “지난번에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Dean's List 수여식이 열려서,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 수여식에는, 학장님께 직접 주시는 Dean's List 상장을 받게 되어서 성균관대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더없이 영광스럽다. 경영관 계단 층층마다 걸려있는 Dean's List 수상자 명단을 보며 나도 더 열심히 학과생활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았다. 경영학과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 하에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형 글로벌경영학과 학생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훌륭한 교수님들의 수업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 특히나 이번 학기에는 나이나 학번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을 보며 배운 게 정말 많은 것 같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2022학년도 경영대학 성균경영리더상 수여식 개최

지난 12월 1일(목) 경영대학에서는 학생회 임원 활동 공로에 대한 표창 및 후대 학생회에 동기부여 제공을 위한 성균경영리더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2022학년도 제22대 경영대학 학생회 Be:between 임원단 12명에게 전달하였으며, 대표로 김무진 학생회장과 김로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안희준 경영대학장, 이태호 행정실장이 참석하여 증서와 기념품을 수여하였다.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상황도 많았지만 대안을 모색하여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주어 수고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균경영리더로서 자신감을 가지며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성균리더상을 수여 받은 김무진 제22대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경영대학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다양

한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통해 많은 학우분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지난 1년 동안 경영대학 학우분들을 위해 열심히 힘써준 모든 학생회 집행부원 분들과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해 주신 경영대학 행정실 관계자 선생님, 모든 경영대학 학우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경영학과 & 일반대학원 소식

문서림(경영 20) 학우, Dean's list 선정 관련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20학번으로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영광스럽게도 2021년 2학기 경영대학 Dean's List에 경영학과 대표자로 선발되어 수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Q 2021-2학기 경영대학 Dean's List에 선발되었다고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경영대학 학장님과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우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Dean's List는 한 학기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학업에 집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라 더욱 기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21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Dean's List에 선발되는 영광스럽고 부듯한 결과를 얻어서 더 기쁜 마음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린다고 느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은데, 경영대학 Dean's List 수상으로 2021년 한 해를 잘 보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Q 이번 Dean's List에 선발되기 위한 본인만의 비결이 있나요?

저는 성격상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번엔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그때의 저에게 '현재'이자 '주어진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현재를 잘 이뤄가다 보면,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씩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그 외 학교에서 참여중인 교내·외 활동이 있나요? 현재 활동 중인 프로그램 또는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내이'라는 교내 광고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별로 짧은 영상광고를 만들어보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평소엔 광고를 소비자로서의 시각으로 봤다면 광고제작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말 꿈꾸던 '경영학도'가 되어 본 느낌이라 부듯했습니다. 광고의 메시지나 기획 등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면서, 팀 내 토론과 동아리 전체 광고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인회'라는 교내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봉사로 진행되어 아이들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2학년이 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된 것 같아요. 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밝고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해줘서 고맙게도 에너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 수학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부담을 느꼈어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또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 이제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자 시작했지만 받아가는 게 더 많아서 참 감사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정해두진 않았지만, 그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이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일 모두 구분없이 현재에 집중하며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저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㉔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론든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경험과 의미를 주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에 봤을 때 ‘이걸 해야 되나? 해도 될까?’라는 망설임을 주는 일들도 막상 시작해서 충실히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에너지를 주고 가르침을 줬던 것 같아요.

왕지혜(경영 18)학생 인터뷰_ 학생성공상 학장상 수상 관련 인터뷰



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8월에 졸업한 경영학과 18학번 왕지혜입니다. 코로나19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영국 대학원 과정의 입학에 미루고 현재 바이두 회사에서 AI 제품에 관한 제품 매니저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㉔ 2022년 학위수여식에 학생성공상에서 학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의외였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 왕년의 수상자들의 경력은 정말 훌륭해서 제가 지원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균관에서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제'라는 생각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결국 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고, 이 상은 저의 성균관 생활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준 것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완성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훨씬 많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멋진 '나'와 나의 작품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작품을 위해 열심히, 천천히 수많은 '현재'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실 모든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우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㉔ 학부시절때 참여했던 교내·외 활동이 있을까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유학생으로서 저는 한국에서의 공부와 문화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균관은 다양한 교내·외 문화교류 활동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낸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19년 여름에 참가했던 연암로드 한중 청년 평화 캠프일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훌륭한 또래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도 있고 중국 명문대에서 온 한국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북한 청년의 강연을 듣고 DMZ 지역을 탐방하고 패널 연구도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이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여행도 함께 다니며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요?

처음에는 캠퍼스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듣는 학습 방식에 조금 적응이 안 됐었는데, 제가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출석 체크의 마지막 기간에 수업 영상을 보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하게 되었고, 어려운 부분은 잠시 멈추고 자료를 찾거나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오프라인 수업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퍼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2020년에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개 인턴십에 참여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실천도 능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경영대학에서 4년간 공부한 결과, 저는 더 높은 학문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 데이터 과학 분석 기법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데이터 과학 분석 기법이 비즈니스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에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취직하고 싶고 저의 다언어 장점과 폭넓은 유학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경영대학의 교육 목표처럼 국제적이고 혁신적이며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기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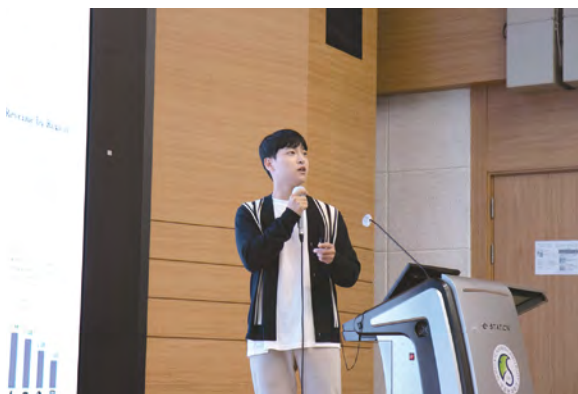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업을 계속하거나 비즈니스 관련 분야에 취업하려면 대학교 공부에서 관심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는 경영정보,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조직, 재무 및 회계 등 경영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할 수 있다면 취업에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제2전공에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유학생 친구들이 유학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언어, 생활 습관 뿐 아니라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제 조언은 굳이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너무 많은 사교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외로움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공부나 취미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자기 계발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이 경험은 그 자체로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제5회 경영학과 Job학다식(진로콘서트) 행사 개최



지난 10월 5일(수) 경영대학은 선후배 네트워크 강화 및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Job학다식(진로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진행된 진로콘서트에는 경영학과 학생뿐 아니라 타과 학부생을 포함하여 모두 105명의 학생이 참석하였다. 이날 이진구(경영12, 현대글로벌비스), 황성욱(경영11, 아마존웹서비스), 한민수(경영14,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김정훈(경영14, 구글) 졸업선배가 멘토로 참석하였으며, 회사 및 직무 소개/진로 토크쇼/현장 Q&A 순서로 진행되었다. 멘토로 참석한 김정훈(경영14, 구글) 졸업선배는 “진로특강이

아니라 100명 이상의 후배님들과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로콘서트라 더 좋았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내 경험을 참고로 후배님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목표로 하는 진로를 꼭 이루길 응원하겠다. 좋은 행사 기획해주신 경영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후배님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멘토인 황성욱(경영11, 아마존) 졸업선배는 "급변하는 채용시장 속에서 진로콘서트를 통해 후배들에게 나의 Career Journey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 어떠한 자리, 위치에서도 Builder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경영학과 22학번 학생은 "아직 1학년이기에 취업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 진로콘서트 자리를 통해 경영학과 선배님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진로를 설계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경영대학 정책집행국장은 "이번 학기도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진로라는 주제를 재미있게 풀고 싶어서 구성을 동일하게 하였다. 선배님들께서 강연을 잘 준비해주어 학우 분들께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Q&A 시간에 학우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경영학과에서는 <Job학다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소속감을 강화하고 졸업 후 멘토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2학기 진로멘토링 개최



지난 10월 5일에 진행된 진로콘서트에 이어 신입생 및 재학생의 진로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Job학다식(진로멘토링)>을 이 실시되었다. 선후배 네트워크를 교외로 확대하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브랜드 강화를 위해 졸업선배 17명과 경영학과생 69명, 총 86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일정 내 오프라인으로 자율적 만남을 진행하였으며, 졸업선배의 재직기관은 카카오, 삼성물산, Google, 효성첨단소재, 삼일회계법인, 한국P&G, NICE평가정보, AWS, 삼성전자, 라이엇게임즈 등이다.

사전에 경영학과 학생이 진로멘토링 신청서를 제출하여 졸업선배와의 매칭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졸업선배 포함하여 팀원 1인당 2만원의 비용을 지원하였다. 오프라인으로 만남 이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뒤 우수팀을 선발하여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Job학다식(진로멘토링)>에서 공동 1위로 선발된 <3대 천왕, 우주정복, 일반적이지 않은 조>팀의 서상화 학생은 "대학생과 사회인은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선배님과 만나고 나서는 그 걱정이 조금 해소되었다”고 전했다.

또 공동 1위로 선발된 <우주정복>팀의 차예주 학생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내실 있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실제 공인회계사 선배님을 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학생의 신분으로 현업에 계신 선배님을 뵈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데, 좋은 기회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온 것 같아서, 시간을 내 주신 선배님께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우주성 졸업생은 “후배님들의 다양한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는 모습에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많은 선, 후배님들이 job학다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면 좋겠다”라며 선배로서 조언을 전했다.

1. <3대 천왕>

팀장 서상화 학우 소감:

저희는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학생과 사회인은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선배님과 만나고 나서는 그 걱정이 조금 해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선배님께서 저희들의 고민을 미리 아시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3,4학년을 다니고 있고,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취준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상황이었는데 선배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배님을 만나 뵈기 전에는 그저 추상적인 고민만 많은 상황이었다면, 선배님을 뵈고 난 후에는 내가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 더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고민을 더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 큰 도움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인지 저희도 나중에 후배들에게 멋진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향후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선배, 그 이전에 멋진 내면을 가진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년 내로 꼭 경영학과의 진로콘서트나 멘토링에 참여하는 선배들이 되자고 다짐하며 동기부여가 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2. <우주정복>

팀장 차예주 학우 소감:

그동안 공인회계사에 대한 내실 있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실제 공인회계사 선배님을 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학생의 신분으로 현업에 계신 선배님을 뵈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데, 좋은 기회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온 것 같아서, 시간을 내 주신 선배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이번 멘토링에서 얻은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사품, 워라벨, 직무별 특징 등 현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으며, 공인회계사가 과연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인지,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좋은 선택이 될지 다시 한 번 생각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은 공인회계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멘토링을 신청하길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선배님께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언젠가 우리도 공인회계사가 된다면 오늘 받은 도움을 우리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성 선배 소감:

후배님들의 다양한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는 모습에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선, 후배님들이 job학다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3. <일반적이지 않은 조>

팀장 이은희 학우 소감:

한국 P&G Sk2라는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과 멘토링을 하였습니다. 마케팅 부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마케팅 부서는 결정권자의 역할이고, 마케팅의 틀, 주의사항을 만드는 것이지 정작 직접 마케팅을 기획하는 것은 외주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마케팅 분야에서 결정권자가 되고 싶은지, 마케팅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의 생생한 경험을 들으니 나의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나영 선배 소감:

진로멘토링을 통해 12학번과 22학번이 만날 기회가 생겨 신선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옛날 추억도 되돌아보고 후배님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1)반적이지않은조" 끝까지 호기심과 패기를 잃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모두 이루기를 응원할게요!

2022학년도 경영학과 글로벌챌린지(독일) 실시

경영대학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2022학년도 경영학과 글로벌챌린지로 독일을 방문했다. 경영학과 학생들을 위해 글로벌 경험이 부족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글로벌 세미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 유수의 학생들과 함께 학업하며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방문국가는 독일 베를린이며 Berlin School of Economics and Law(BSEL)에서 주최하는 International Week on Sustainability 프로그램 참여하였다.

사전에 서류심사 및 ESG분야에 대한 관심 및 열정, 탐방 시 기대효과, 자기소개, 적극성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총 1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10명 학생들은 10일동안 sustainability week에 참여하여 매일 6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

행하였다. 지속가능과 관련한 정치적, 윤리적, 데이터통계학적 접근과 circular economy, SDGs, CSR 등 관련 키워드들에 관해 글로벌한 시각을 기르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이번 글로벌챌린지에 참여한 이선민 학생은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단순히 앉아서 강의를 수강하는 형태가 아니라 conference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하는 참여 형식으로 진행되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또, 곽현수 학생은 “EU의 주축인 독일에서 ESG나 Sustainability 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체험하며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선혁 원우,

경영대학 中峰국외유학장학 선발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Scheller college of business)



우리 대학은 국외 우수대학원의 경영학 박사과정에서 학업을 이수하려는 학생 가운데 바람직한 품성 및 창의성을 갖추고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경영학 분야의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中峰국외유학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2022년 中峰국외유학장학생에 선발되어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Scheller college of business> Finance PhD program에 진학하는 이선혁 원우를 만나 선발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안녕하세요 이선혁 원우님, 먼저 中峰국외유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축하드립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8월 경영대학 일반대학원 재무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한 이선혁이라고 합니다. 2011년 글로벌경영학과에 입학해서 2014년에 인디애나 복수학위 과정을 마쳤고, 공군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에 외국계 은행에서 계약직/인턴으로 짧게 근무하다가 본교 석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에 경영대학 우수석사장학생으로 처음 선발되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중봉국외유학장학생으로도 처음 선발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Q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학생성공상 학장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어떠한 활동으로 수상하게 되었는지요?

학생성공상을 받을 만큼 학업을 우수하게 수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ㅎㅎ 그래도 석사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온 부분을 높이 사주신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에 경영학과 재무전공 대학원 수업이외에도 인공지능융합학과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수업을 수강하기도 하고 도전학기 과목도 수강하면서 요즘 경영학계에서도 뜨거운 이슈인 머신러닝 방법론을 습득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지도교수님이신 송교직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석사 논문에도 관련 방법론을 적용하여 미국 기업의 Earnings Call Transcript Data를 분석하여 기업의 혁신적 문화 수준을 점수화한 변수를 회귀 분석 모델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실제 재무 연구와 머신러닝 방법론에 접점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학과 계량경

제학 과목을 수강/청강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과 툴을 습득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한 부분을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Q 학부시절에 학회나 여러 대외활동에 참여하였을 텐데, 교내·외에서 참가한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꼭 하나 꼽자면, 경영학과 학회인 SEN(Social Enterprise Network)에서 활동한 것인데요, 새내기 시절 여름방학에 SEN 내부 소모임 Reading Group에서 Columbia Business School의 Social Entrepreneurship 수업 자료를 같이 읽고 토론하면서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투자 (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등에 대해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제 인생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학문적 관심 이외에도 연합학회 특성상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우수 대학 학생들과 함께 교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리더십 포지션에서 활동하며 Social Skills을 기르는 데에도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아가 인턴십이나 대외활동 정보를 얻거나 인터뷰에서 훌륭한 면접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이 되어 준 활동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Q UN Global Compact에서 인턴, BNP Paribas Seoul Branch Corporate Coverage Team, Mizuho Securities Asia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요? 현재 장학생 선발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학부 2학년 여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Engagement를 위해 힘쓰는 UN Global Compact Korea Network에서 3개월간 무급 인턴으로 일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200여개 협회 회원사에 뉴욕 본부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회원사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만들고 2주에 한번씩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국내 회원사 CEO 분들과 만나시는 간담회 행사를 함께 준비하기도 했고, 제1회 Youth CSR

Conference를 기획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BNP Paribas 서울지점에서는 은행과 클라이언트의 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Corporate Coverage 팀의 Relationship Manager를 도와 당시 공석이었던 ARM(Associate Relationship Manager)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등 국내 대기업의 재무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상품에 대해 liaison officer 역할을 맡아 클라이언트 회사의 재무 담당자, 로펌, 그리고 은행 내 상품 팀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며 파생상품 계약 갱신을 수행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RM/ARM분들이 ad-hoc으로 요청하시는 Credit memo 작성, 리서치 등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client pitchbook 제본, 서류 발송하기 등 다양한 오피스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Mizuho Securities Asia에서는 Debt Capital Market 팀에서 Summer intern으로 활동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인 한국물(Korean paper)을 발행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Deal은 롯데물산에서 발행한 Green Bond였는데요, DCM에 지원한 계기가 사실 이런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 실제 발행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관심을 갖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활동들을 하며, professional setting에서 영어로 communication 하는 것에 대해 정말 혹독하게 트레이닝이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장학생 선발을 넘어, 박사과정 진학하는 지원과정에 있어, 인터뷰나 교수님 contact하는 것 등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커리어의 방향성을 고민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조언도 중요했지만, 실제로 근무하며 느끼는 실제 Work-life balance에 대한 고민이라던지, 어떤 가치를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라던지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박사과정 진학 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지원 과정에서 3개 정도 학교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Georgia Tech의 경우 정말 훌륭한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산업공학(ISYE) 및 컴공(CS)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경영대 Finance program의 경우 이 두 학과와 밀접하게 교류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선택하는 데 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tlanta에 위치한 Emory University나 Georgia State University와의 교차 수강이 가능해서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에 Emory에서 Corporate Finance Theory Seminar 수업을 청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2019년에 송교직 교수님께서 개최하신 SKKU AI Finance workshop에 지금 GA tech 지도교수님께서 강연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 재무연구와 machine learning/Computer Science와의 접점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후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된 터라 이런 인연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CSR/ESG 같은 Sustainability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하는 교수님이시기도 했구요.

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achine Learning/NLP 방법론을 연구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요 관심 연구 분야인 Sustainable Finance (ESG/Climate finance), traditional corporate finance(M&A/IPO) 뿐만 아니라 Finance Industry의 Digital transformation 등 fintech 분야 등으로 관심사를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현재 Department에서 NLP/Crypto 관련 Reading group도 운영하고 있어서, 가용 자원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보려 합니다.

Q 이선혁 원우님의 박사 학위 취득 후 목표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사 학위 취득이 너무 먼 미래라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긴 한데, 지금 짧은 생각으로는 미국 내 우수한 연구 중심 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는 것을 박사과정의 Goal로 삼고 있습니다. Top-journal에 논문을 꾸준히 내는 성과 좋은 연구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복한 연구자/교육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큼니다. 최근에 시인에서 낸 <사채의 늪은 여기서 시작된다> 라는 기사를 읽고 사실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직책이나 기관 소속을 떠나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건방진 생각이긴 하지만 미래 산업계의 리더가 될 경영학 전공 학생들을 올바른 가치를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작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학계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지만, 재무 금융 학계에서는 그래도 규제 당국과 금융산업 관계자들과 활발히 교류, 토론하며 엄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것에서 연구자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능력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박사과정을 통해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한다면 그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툴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 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Q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준비(석박사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 해외 석사, 자교 진학, 타교 진학 같은 여러 옵션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구요. 각각의 길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자교 진학이 가지는 메리트는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 정말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진학 후에도 크게 느꼈고 지금도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 제도도 타 전공, 타 학교에 비해 정말 잘 되어있고, 교수님들이 자기 식구처럼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특히 해외 박사과정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성대 경영학과 일반 대학원이나 핀테크 융합학과 같은 자교 프로그램으로 진학하는 것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진학 및 진로 관련 팁 공유 같은 방법론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해외 박사 진학이 아니더라도, 성균관대 경영대학의 박사과정 역시 어디 내놔도 손색없을 만큼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탑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시는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가지신 교수님들 아래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졸업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해외 대학 출신 박사분들을 제치고 국내 및 미국 등지 유수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어 가시기도 하는 등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U of SC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나 교환 연구 프로그램 같은 기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구체적인 진학 및 진로 관련 팁 공유 같은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 성대 후배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선, 中峰국외유학장학생 선발을 위해 기금을 쾌척해 주신 이현구 회장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에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환율도 크게 올라 유학생 생활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공부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이현구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배님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셔서 중봉국외유학장학생제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자리잡아 더 많은 성대 출신 연구자들이 경영학계에 배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대 경영대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연구자, 교육자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복수학위 설명회 개최 및 Dr. Omrane Guedhami 세미나 실시

지난 10월 7일(금), University of South Carolina(UofSC) 경영대학의 Dr. Omrane Guedhami를 초빙하여 박사 복수학위 설명회 및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우리대학은 지난 2019년부터 UofSC의 달라무어 경영대학(Darla Moore School of Business)의 국제경영 분과와 복수학위 박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등 경영학의 주요 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심리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들이 대학원생들과 융합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r. Omrane Guedhami은 Publication Strategies to SKKU Doctoral students/Junior Faculty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경험적 결과와 연구의 새로운 단계를 포함하여 내용을 발표하였다. Dr. Omrane Guedhami은 재무, 회계, 국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편이 넘는 S급 논문을 포함 90여편의

논문을 국제 유수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안드레아 교수(일반대학원 학과장, 매니지먼트 전공주임), 박흥주 교수(재무전공 주임교수), 김영한 교수 등이 참석하여 프로그램 안내 및 Q&A가 진행되었으며 관심있는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다.



글로벌경영학과 소식

2022 글로벌경영인의 밤 성황리에 개최

11월 25일(금), 글로벌경영학과 제 13대 학생회 GBAbLe 주최로 글로벌경영인의 밤이 성균관컨벤션 웨딩홀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글로벌경영학과 재학생, 졸업생, 교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홈커밍 행사인 글로벌경영인의 밤을 진행하였다.

이날 안희준 경영대학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 신영석 교수, 김영한 교수, 조셉킴 교수, 김용석 교수, 오종민 교수, 배준형 교

수 등 140여명의 졸업생 및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1부에 안희준 경영대학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의 축사 및 건배사로 시작하였으며 학생회에서 감사패와 꽃다발 전달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글로벌경영학과 연극 동아리인 연하남녀의 영상을 시청하고 조별 게임, 밴드 공연이 이어졌다.

〈글로벌경영인의 밤〉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들의 소통을 지원하며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금융투자학회 S.T.A.R, <타임폴리오자산운용>으로부터 장학금 수여_김규리(글경 19) 학회장 인터뷰



지난 7월6일, 경영대학 금융투자학회인 (S.T.A.R)가 국내 헤지펀드 1위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았

다. S.T.A.R는 3개월간 커버된 종목 금지 룰이나, 투자 매매 전략을 제시하는 등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퀄리티의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새롭고 참신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으로 동아리 가치를 강화하는데 쓰이길 바라는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의 뜻에 따라 금융권에 있는 선배들을 초청하여 경험을 쌓겠다는 S.T.A.R 학회장인 김규리 학우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경영학과 19학번 김규리입니다. 현재 금융투

자학회 S.T.A.R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6월부터 본 임기가 시작해서 내부적으로는 학회원들의 방학 세션 교육에, 외부적으로는 홈커밍 및 장학금 수여식까지 취임 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 대기업 ■ 중견사 ■ 은행/보험/카드 ■ 자산운용사/에이전트/시모펀드 ■ 금융공학기업 ■ 회계법인 ■ IS/VC ■ 기타

Q 이번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서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고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타임폴리오 IVY Club 장학금>이 무엇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영광스럽고도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회에 관심 가져 주시고 잘 지도해주신 박영규 교수님을 비롯해, STAR라는 멋진 학회를 물려주신 OB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 또한 맡은 임기 동안 학회의 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IVY는 '소중한 청년들을 위한 투자(Investment for Valuable Youth)'란 뜻의 약자입니다.

타임폴리오 황성환 대표님께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금융에 달려 있는 만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훌륭한 금융인 양성 차원에서 대학 투자 동아리에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이 동아리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공동 주식 투자를 통해 자금을 불리는 것보다는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선배님들을 초청해 현장의 경험을 듣고 리포트를 제본하거나 기념품을 제작해 동아리에 대한 로열티가 생기는 데 지원금을 쓰는 것을 장려하셨습니다.

저희 STAR도 홈커밍이나 기념품 제작 등 학회 명성과 로열티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지원금을 활용해, 학회의 명성을 높여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Q 타임폴리오 IVY Club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선발기준 및 과정이 궁금합니다.

타임폴리오에서는 향후 장학금 대상 투자 동아리의 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년 1월과 7월 초 두 차례 수여식을 개최하며 동아리 당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1기는 타임폴리오 차원에서 선발했지만 2기부터는 공모로 진행됩니다.

행사 2개월 전 회사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전국 대학생 금융 관련 동아리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차 서류

전형과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우수한 학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열정과 실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각 학회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를 타임폴리오 카페에 업로드하는데, 시중 내용을 카피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 투자자로서의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STAR에서도 회장단 차원에서 새롭고 참신한 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커버된 종목 금지 룰이나, 투자 매매 전략을 제시 형식이 그 예시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Q 현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영대학 STAR 동아리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가치에 투자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금융투자학회 S.T.A.R는 Sungkyunkwan Traders and Researchers의 약자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학회라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주요 직무인 Research와 Trade를 모두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강점 중 하나입니다.

Research의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 및 이슈를 분석하고 밸류에이션을 거쳐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매주 각 리서치 팀은 기업 및 산업분석을 통해 투자의견을 도출하며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Trade의 경우, 매 학기 선발된 펀드매니저가 실제 STAR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은 매 세미나에서 시장 분석 및 포트폴리오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수익률 현황 및 펀드 운용 방향을 공유하고 학회원들끼리 토의하며 실전 투자 감각을 길러 나가고 있습니다.

S.T.A.R의 모든 학회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을 바라보는 안목과 산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 활동에 임합니다. 더불어 투자에 대한 이해와 실전 감각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누적 400여명에 달하는 수료생들은 증권업, 자산운용업을 비롯하여 각종 금융업종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에 관심있는 경영대학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열정, 실력, 사람”

1년동안 학회에 몸담으면서 느낀 점은 금융권을 가고자 한다면, 크게 이 세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열정과 실력을 기르는 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험난한 금융권이라는 여정 속 평생을 함께 걸어

나갈 동료이자, 친구이자, 가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STAR를 졸업하면 남는 게 뭔가 하는 질문에 다들 하나같이 “사람”을 꼽습니다.

결국 저희의 자산이자 자량은 스타 동기, 선후배 분들 일 겁니다. 금융권을 꿈꾼다면 단연 STAR가 최고의 선택지라고 단언합니다.

조현우(글경 15)학생 인터뷰_ 학생성공상 학장상 수상 관련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15학번 조현우입니다. 학사과정을 마치고 이번 8월에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Q 2022년 학위수여식에 학생성공상에서 학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학교 관계자 분들과 4년간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생을 마무리하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공’ 그 자체는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각자 꿈꾸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저는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들 모두 각계각층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정진하여 학장상에 걸맞은 인재가 되어 다시 성균관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Q 학부시절때 참여했던 교내·외 활동이 있을까요? 혹시 가

장 기억에 남는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에 Junior Achievement에서 국제청소년 실물 창업대회 스태프로 활동하고 1,2학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문화외교사절단에서 VIP 분들의 통역과 의전을 맡았습니다. Junior Achievement는 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경제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UN 공식 인정 NGO로 2022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인도에 자판기를 팔아라’라는 주제로 제가 국내 대회 1위를 하여 저랑 연이 깊은 단체이기도 합니다.

어느 학문도 결국 마찬가지겠지만, 경영학은 특히나 책만 파는 공부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업종, 그것보다 더 많은 회사가 있고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요? 진로 탐색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경험과 성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 모형을 구상하고 물류부터 사업 전략까지 다방면을 유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입장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Junior Achievement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어 다양한 현직자들로부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한문화외교사절단에서의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 VIP께서 참석하시는 각종 문화 외교 행사에서 통역과 의전을 수행했

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기본 적이 없어서 특히 어학 능력에 대한 욕구가 컸습니다. 각종 문화 외교에 참석하면서 일상회화를 넘어선 전문적이고 격식 있는 정도까지 어학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세계의상페스티벌에서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내외 통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



주한외교사절단 대구 방문. 앞에 있는 문화 전문가가 우리말로 설명을 하시면 제가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대회 포스터입니다.

Q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는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모든 수업에 목적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좋아하고 관심 있는 활동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흥미가 없으면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실제로 1학년 1학기에는 학교 지정과목에 학과 지정과목까지 연거푸 들으면서 낮은 성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성적표를 받고 '공부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학업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수강신청에 있어서 어느 과목을 수강할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강의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며 수업 이수를 통해 어떤 것을 학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공부한 재무 수업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재무학에서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합리적인 정보이용자들을 가정하지만, 과연 인간이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Intermediate Investments〉, 〈Intermediate Finance〉, 〈Financial Management〉를 이수하며 고전적인 가치평가 기법을 학습하였으며, 〈Behavioral Finance & Fintech〉와 〈Venture Financing〉을 통해 불완전한 합리성을 토대로 한 실물시장의 변동성을 관찰했습니다. 수리적 방법론을 학습하기 위해 〈이산수학〉, 〈미분적분학1〉, 〈선형대수학〉 등 수학 교과 역시 수강하였습니다. 수업계획서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교수님들께 적극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같은 수업일지라도 어느 교수님이 가르치시는지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제가 수강한 〈중급회계 2〉와 〈학술적 글쓰기〉는 3명 이상의 교수님께서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각각 최관 교수님과 전대석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중급회계 2〉의 경우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회계처리를 다루신다고 하셔서 수강하였고, 〈학술적 글쓰기〉의 경우 교수님에게 3회 이상의 첨삭을 가치중립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좋은 학점을 위해서 평균 학점 비율이 높은 강좌를 수강하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수강 과목을 설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앞으로의 향후 진로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먹고사니즘’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전공인 글로벌경영학을 토대로 기업의 당면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기업재무의 전문가가 되는게 제 꿈입니다. 이번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회계감사 1 유예라는 성적을 거두었는데 당분간은 M&A와 회계감사 부문에서 인턴을 경험하며 시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무엇을 알고 또 모르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로를 택하더라도 한 손에는 전문성을, 또 다른 손에는 현업의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은 학생과 사회인 사이의 주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지

식을 배우고 익히는데 그와 동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관계 문제도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도전정신과 그로 인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난 대학생활을 반추했을 때 머리로 혼자 생각해서 탐구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회, 환경, 그리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라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는 완벽한 인생도,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인생도 없으니까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기념사진입니다.
발목 부상 이후 도전했습니다.

Bank of America 서울지점 임현욱 공동 대표 특강 성료



지난 11월 10일(목), Bank of America 서울지점의 공동 대표 임현욱 박사의 특강이 국제관에서 열렸다. 교환학생 10여 명을 포함, 약 7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본 특강에 참석하였고 예정 되었던 강의 시간인 90분을 훨씬 넘겨 2시간 이상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임현욱 대표는 코오롱에서의 외환관리 FX 업무를 시작으로 KDB산업은행, 도이치은행 서울지사와 싱가포르 지사 그리고 Standard Chartered Bank의 싱가포르 지사를 거쳐 2015년부터는 Bank of America 서울지점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국제금융, 그 중에서도 Fixed Income, Currency, and

Commodities(FICC) 분야의 전문가이며 미국 Duke 대학에서 MBA를, 금년에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SCIE 저널인 ESA에 Neural network foreign exchange trading system using CCS-IRS basis: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 논문을 게재하여 학계와 업계에서 모두 뛰어난 실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대표는 글로벌 बैं킹 커리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각도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아시아권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을 추천했으며 본인의 희망 직무에 따른 CFA 또는 CPA 자격증 취득에 대한 조언과 글로벌 बैं킹 커리어를 위

한 면접 준비와 현업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금융시장의 트레이더로서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 투자는 행의 IB 부서와의 차이, 트레이더와 세일즈의 차이, 영어 커뮤니

케이션 스킬의 중요성, 해당 직무의 스트레스와 문화, 그리고 블룸버그 터미널 조작과 코딩 스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직접 나눔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미노피자 X SKKU GBA 산학협력공모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에서는 11월 4일(금)부터 30일(수)까지 1개월 간 도미노피자와 함께 산학협력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MZ세대 대상 3가지 부문별 마케팅전략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모전은 참가신청을 시작으로 Kick-Off Meeting, 예선진행, 결과 공지, 최종발표 및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선에는 69명(19팀)이 지원하였으며, 총 6팀이 결선에 진출하였다. 11월 30일(수) 최종발표 및 시상식에는 도미노피자 브랜드전략팀 강명구 팀장과 제휴마케팅팀 김건우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심사하였다. 팀별로 15분씩 발표 후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후 곧바로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시상식에는 오광현 도미노피자 회장, 안희준 경영대학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이 참석하여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성균관대학교가 모교인 오광현 회장은 “역시 성균관대학교 학생답게 잘 수행해주었다. 학생들에게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색다른 시각으로 주제에 대해 고민해 준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안희준 경영대학장은 “우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도미노피자 측에 정말 감사하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업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도 앞으로 진로 결정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주저 말고 도전하여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김상현, 이채원, 박소영, 변예빈 학생이 속한 ‘도민노’팀이 대상을 차지하였고, 김혜은, 박유진, 윤서희, 정찬영 학생이 속한 ‘오도완’팀이 최우수상을, 김민경, 이채림, 임설아 학생이 속한 ‘Engel 300’이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 (EMBA) 소식



Q 심철환 원우님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2021년) 가을학기에 110기로 입학했고, 62대 총학생회 회장을 맡게 된 심철환입니다. 늦깎이 학생으로 EMBA 입학은 40대, 지금은 50대가 되었고, 저희 집에는 남자 고등학생 2명을 포함해 3명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Q 현재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회사 소개와 더불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Elastic Search에 근무 중입니다. Elastic Search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작해서 상용 라이선스로 전환 중이며, 다양한 실시간 검색, 로깅, 보안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2년 설립됐고, 2018년 뉴욕증시에 상장되었으며 한국에는 2017년 유한회사 지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작년(2021년) 12월에 Elastic Search에 합류해서 포스트 세일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구매 계약한 대형 Enterprise 고객 중에서 고객의 비즈니스에 Elastic Search를 적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혹은 운영적 지원을 맡고 있으며, 아마존 Cloud와 Google Cloud와 협업하여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EMBA 110기 심철환 62대 총학생회장 인터뷰

지난 12월 전에는 한국오라클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제 경력에서 국내기업에 13년, 외국계 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하며 IT 업계에서 총 23년째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Q 이번에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에 중요한 시기에 제가 가진 업계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점점 바닥나는 듯한 지친 상황에서도 MBA 진학의 목적 및 필요성을 이해하려고 여러 해 동안 고민 후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제가 EMBA 입학 후, 여러 해 동안의 MBA 필요성에 대한 제 고민이 불필요한 과정이었구나를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과의 수업을 통해서, 원우들과의 과제를 통해서, 원우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등등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껏 경험하고 만나보지 못한 인맥, 다양한 직종의 이야기, 노하우 등을 발견해가며 매 순간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EMBA 과정에서 제가 평소 관심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제 경험을 공유하고, 이끌어보고자 총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고, 주위의 많은 원우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큰 난관없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고, 당선 이후부터는 제가 원우님들께 되돌려 드린다는 생각으로 봉사와 헌신하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제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62대 총학생회 발대식 준비 및 가을학기 주요 행사를 계획하느라 학생회 구성원우들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Q 이번 학기 동안 계획 중인 학생회 사업 및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희 62대 총학생회는 “소통과 교류”의 EMBA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끊겼던 EMBA 원우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며,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원우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며,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총동문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과거의 오프라인 행사처럼 성대히 진행할 예정이며, 재학생과 졸업생 원우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학기마다 진행하며, 정기적인 학과장/교수 간담회, 경영인의 축제인 경영인의 밤 행사와 EMBA에 신입생으로 입학할 때 축하의 기분처럼 졸업생도 축하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졸업기수 환송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외 각 국별 소소한 이벤트(직종 모임, 조장 모임, 채널 다양화 등등)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회 발대식 전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학생회의 활동은 그 동안 코로나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원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나 시험 등 어려움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으신지요?

특정 과목의 경우, 현업에 계신 원우님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토론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우들의 견해와 경험이 반영되어야 할 일부 과목의 시험이 온라인 시험으로 인해 객관식 선택답안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던 수업의 경우, 가끔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원우가 없어 교수님과 몇 명의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원우로 강의실을 채워 수업이 썰렁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을 선호해서 지난 학기의 경우 한 주에 3일을 학교수업을 위해 등교했던 기억이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교수님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가 재미있고, 신선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EMBA 내에서도 더 많은 원우님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입 원우들이 알아 두면 좋을 만한 학교생활 TIP이나 조언이 있다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가 경험한 EMBA 과정에서는 절대 나 아닌 누가 대신 밥을 입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종과 직책, 다양한 취미를 가진 동호회, 학생회 등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는 MBA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MBA 과정을 통해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각자 분야에 열정적이며,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제 스스로 겸손해졌으며, 내가 활동하는 만큼 배울 수 있고, 내가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석구석에 아직 숨어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EMBA 내에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EMBA를 시작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오픈 마인드로 EMBA내에 준비된 많은 교수님과 원우들을 알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재학 및 졸업한 원우, 교수님들을 위해 학생회장으로서 올해 활동에 앞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62대 총학생회는 한발 앞서 고민하고, 원우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재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을 포함한 EMBA의 원우 모두를 화합하고, 하나로 만들기위해 학생회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EMBA 전통을 찾아 다시 연결하고, 과거 선배기수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EMBA 활동을 찾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학생 및 졸업생 원우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수인터뷰]

고용관계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안드레아 교수



☞ 안녕하세요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지먼트 전공 부교수 김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인적자본과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전략적 활용, 종업원 참여지향적인 경영, 기업의 친환경

경 성과와 직원의 자발적

☞ 현재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 수업은 무엇인가요? 이 수업에서 주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EMBA에서는 2015년 2학기부터 고용관계론(舊 노사관계론)을 강의해오다가 2021년부터 인적자원전략론을 강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기당 한 과목씩 번갈아 가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두 교과목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직원관련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지식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초점은 상이합니다. 고용관계론은 직원의 권리와 이해를 우선시하여 직원 중심의 방안을 모색하는 반면, 인적자원전략론은 경영자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합니다. 물론 직원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오늘날의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직원보다는 회사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인적자원전략론의 기본 입장입니다.

☞ 이 수업을 통해 실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EMBA 학생들이 조직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들을 학습하는 고용관계론을 수강하게 되면 이러한 관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자신의 직장 생활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소문난 기업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관한 사례들을 학습하여 과거에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비교해본다면 자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고용관계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직장의 모습을 구체화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과의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등 과거부터 존재해왔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학습하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자원전략론은 인적자원관리 담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중간관리자나 경영자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직장 생활을 통해 모집부터 교육까지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세부 영역들을 이미 경험해본 EMBA 학생들에게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기능이 어떻게 기업 성과 향상이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사례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기능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운영 측면이 아니라 조직의 현재와 미래의 성과를 위해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는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교과목을 모두 수강하게 되면 조직과 직원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여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람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균형된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MBA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들이 많아 여러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EMBA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직전 학기까지 모두 320명의 수강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회사와 조직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고용관계론에서 수강생들은 팀과제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주제가 일하기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주로 사례 기업이나 조직의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데, 한 팀은 좀 달랐습니다. 이 팀의 구성원들은 각자 현직장에서 일 하기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례들을 자랑하듯이 소개하는 것이 당초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 중 한 팀원은 소속 조직의 여러 사례들을 좋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정색을 하더니 나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든답시고 제발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절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팀원의 발표는 저와 다른 수강생들에게 상당히 놀라웠고, 지나치게 솔직한(?) 발표 덕분에 끝날 때까지 웃음이 폭발하였으나, 다른 팀원들은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다양한 동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이 좋은 점 같습니다. 저는 와인동호회의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 운영진들이 헌신적으로 학기마다 다양한 행사와 모임을 만드는 모습이 늘 인상적이었고, 졸업생들도 참석해준 덕분에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청강 제도를 통해 제 수업을 청강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졸업생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새롭게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생처럼 과제까지 수행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청강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적극적인 학생들이 바로 강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토요일에 수업하는데 토요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 일정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통학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의 다양성이라는 또 하나의 강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EMBA 재학생 또는 예비 EMBA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학생들에게는 지금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선배나 동기들과 우정을 돈독하게 다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와 와인으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 학생들에게는 百聞不如一見이니 우리 EMBA가 얼마나 좋은지 입학해서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0기 박현민 원우의 실제 수강 후기〉

지난 학기 인적자원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인적자원 운영 전략 전반에 관해 깊이있게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가지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원우님들 개별로 분석 기업을 정하고, HR 운영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다방'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계신 원우님의 기업 탐방 시간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HR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HR은 비전공자인 제가 수업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갖고 수업 콘텐츠를 풍부하게 꾸려 주신 김안드레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3학기째 수강하면서, 제게는 단연 베스트 3에 드는 수업이었습니다.

경영전문대학원 EMBA 112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난 8월 20일(토), 21일(일) 이틀에 걸쳐, 경영전문대학원 E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했다. 경영전문대학원 EMBA 112기 신입 원우들을 위한 이번 행사는 62대 총학생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안희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축사를 시작으로 김도현 학과장의 신입학 환영사가 이어졌다.

내외빈 및 EMBA 62대 총학생회, 교수진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어 총학생회 및 동호회 소개 등이 이어졌으며 레크리에이션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원우들 간의 단합을 도모해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대학원(IMBA) 소식

투철한 군인정신이 빛나는 IMBA의 탐견,
35기 배중범 원우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배중범 원우님(소령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기라성 같은 IMBA 졸업생/재학생들만 할 수 있다는 인터뷰에 저를 초대해 주시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공군 소령이고, 충청지역 소재의 전투비행단에서 전투조종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2006년도에 졸업하고, 공군 소위로 임관해서 현재까지 일선 전투비행부대에서 군 경력을 쌓아오고 있으며, 주 기종으로는 대구에서 F-15K를 10년 정도 조종하며 교관조종사로서 각종 작전/훈련에 참가하였고, 2017년도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도입 조종사로 선발되어 미국에서 교관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공군에서 전력화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성공관대 IMBA 과정이라는 좋은 기회를 접하고 35기로 입학해서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원우님들을 만난 것을 인생의 큰 행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출석하며 교류하는 횟수는 적었지만, 그만큼 더욱 애듯하게 동기 원우들이 서로와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코로나 직격탄 기수로 유명한 35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도 훌륭했지만, 사회 각계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기원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군생활도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군장교라는 신분이 국가공무원이자 공인으로서 많은 제약과 의무, 책임이 뒤따르지만, 그만큼 절제된 행복을 추구하며 즐기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권력이 주어지는 고위직도 아니지만, 묵묵히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제복에 부끄럽지 않는 지금의 절제된 삶이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참고로, 절제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저도 아직 술을 잘 절제하지는 못하고 그만큼 노는 것도 좋긴 합니다.

Q 공군에 재직중인 동시에 경영대학원IMBA 과정을 성실하게 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학업과 함께 병행하기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공군 전투조종사로서, 그리고 경영학/재무회계/마케팅 등의 비전공자로서 새로운 학업의 영역은 언제나 도전적 과제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있었지만, 주경야독하기에는 쉽지 않았고, 더구나 저는 사무직이 아닌, 항상 지상 업무와 필드 트레이닝(전투기 조종)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모드 전환이 쉽지 않았고, 밤에는 항상 피로에 젖어 일찍 잠들기 일수였습니다. 시간 없다는 핑계가 가장 미련한 핑계이지만, 정말 시간만 충분했다면 한 과목 한 과목 깊게 탐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나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주말에 출석의무가 없어지고 그만큼 통학시간을 벌긴 했지만, IMBA의 생명인 원우들과의 네트워킹을 하지 못한 것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군 복무와 함께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 그리고 함께 수업 들었던 동기 원우님들의 전문적인 지식 전수와 코칭, 교수님들의 배려와 가르침으로 2년동안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후배들이 IMBA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면 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큰 장점에 대해 부각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저 또한 IMBA 과정을 통하여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기에 자신있게 후배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학생 기수에 공군 조종사 후배들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합니다. (제 평소 생활 모습을 본 후배들 입장에서, 제가 추천한 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Q 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사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학교에 직접 출석한 경험이 10회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입학초기에 사재기해 놓았던 주차권들

묵음이 차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환불 안 되나요? 당근마켓에 팔아야 할지) 그만큼 학교 생활에 대한 동경이 아직 많습니다. 게다가 저는 학사과정을 사관학교라는 특수대학교에서 마쳤기 때문에 캠퍼스의 낭만을 느껴보지 못했던 지라, 더욱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수업을 수던화하여 동기원우들과 학교 앞에서 낚슬자리도 함께 하고 서울에서 택시 타고 충청도인 저희 집으로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IMBA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3학기 때 창업실무론(김우진 교수)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개강하여 수업을 빌미로 원우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꼬박꼬박 출석하며 수업도 열심히(?) 듣고, 전후로 열심히 모임에 참석했던 추억이 깊게 남습니다. 교수님께 수업 첫 날에, 창업에 관심 없다고 대 놓고 선언해서 교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기억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Q 배중범 원우님(소령님)은 어떤 군인,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저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현재까지 약 17년 동안 장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에 전투기로 한반도와 바다 상공을 누비며,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로망도 느껴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제복의 멋 등 많은 내적 동기 부여에 의해 군생활을 긍정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군에서 굵직굵직한 무기체계의 전력화 현장에 있었다는 자부심도 가득하고, 현재도 후배들에게 전술과 작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최선임 교관조종사라는 직책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앞으로 지금까지의 군생활 한만큼의 시간을 군에서 헌신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명예에 의하여 퇴역을 할 것 같습니다. 진급하는 계급에 따라 다소 폭은 다르겠지만, 남은 군생활도 절제의 미학 속에서 군인답고 공인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 속에서 기도하며 앞으로의 군생활에 임하고 싶고, 동기원우들께는 정말 성공으로서 보답하고 싶지만, 저는 '성공한 군인'이 되기 보다는 '진짜 군인'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경영대학원 IMBA 40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난 8월 20일(토) 17시, IMBA 40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38대 총학생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해외에 있는 원우 및 참석을 못한 국내 원우들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유튜브)으로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IMBA 최초로 신입생 및 재학생을 비롯하여 졸업생을 초청하여 약 350여명의 IMBA 원우가 참석하였다.

행사는 크게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40기 신입생 입학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김학균 학과장, 최동윤 총동문 회장, 박성균 성우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2부는 킹고응원단의 공연에 이어 안희준 경영대학장 및 신지선 지도교수(40기)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이 후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식, 동호회/연구회 소개 등이 이어졌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네트워킹이 단절되어 왔으나 이번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RECONNECT DAY” 행사를 통해 선후배의 관계가 연결되는 날이었다.



IMBA “아세안 원우의 밤” 행사 개최

경영대학원(IMBA) 38대 총학생회 산하 아세안 원우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토)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아세안 원우의 밤”이라는 행사명으로 아세안 원우회 발족식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로 인하여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었던 해외원우들이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호치민, 태국, 미국 등지에서 도착하고, 김순중 총학생회장 등 한국에서도 원우들이 참여하여 약 40명에 가까운 IMBA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하였으며, 안희준 경영대학장님과 김학균 IMBA 학과장님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캄보디아, 일본, 싱가포르 등의 해외원우들도 ZOOM 화상회의를 통해 함께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하여 참석하였다.

행사는 학장님의 축사로 시작하여 신입생 소개, 졸업생 축하와 학위기 전달, 그리고 아세안 원우회 열정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안희준 학장님이 김정규(37기) 아세안 원우회장에게 아세안기를 전달하는 이벤트였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해외원우들을 위로하고 국내외 해외원우들과의 더욱 폭넓고 견고한 IMBA 네트워킹을 다져가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 11월 29일 20시, 핀테크 MBA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토스뱅크 박준하 CTO(기술개발 총괄)를 모시고 “전통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의 7가지 차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핀테크 MBA 학생뿐 아니라 핀테크 융합 전공 석박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와 토스뱅크 시스템을 실무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핀테크 MBA 세미나는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매 학기 1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핀테크MBA 신입생 모집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MBA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핀테크MBA는 2022학년도 1학기 신설 과정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어갈 핀테크 전문가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한 MBA이며 1년 6개월간의 학업을 통해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직장 생활과 학업 병행이 원활하도록 주중 저녁과 토요일에 수업이 개설되어 학생의 스케줄에 맞게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을 통해 미국 South Carolina 대학에

서 Business Analytics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대학 유일의 BK핀테크교육연구단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 최고 수준의 전임교원 중심 강의, 풍부한 장학혜택, 복수학위를 통한 글로벌 핀테크 전문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기간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문의 상담은 핀테크MBA 행정실(Tel.02-740-1682)로 연락하면 된다.



W-AMP 최고경영자 과정

W-AMP 최고경영자과정 23기 일본 해외세미나 진행



우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W-AMP에서 지난 10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해외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만에 개최된 해외세미나는 안희준 경영대학장을 비롯하여, 오원석 W-AMP 특좌교수, 김종욱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W-AMP 23기 원우 및 배우자 등 34명이 참석하여 해외 탐방과 원우들간의 소통 증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해외세미나는 일본 나고야, 도야마, 알펜루트 지역을 방문하여 일본의 역사, 문화, 자연과 산업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은 일본의 3대 명소중 하나인 나고야성을 둘러보고 도요타

산업기술 기념관에 방문하여 방직 회사로 시작한 도요타의 방직 산업 기술의 발전부터, 자동차 산업까지 확장하게 된 역사를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의 메인 일정을 통해서는 친환경적인 산악 지역인 알펜루트를 둘러보고 일본에서 가장 깊고 긴 구로베 협곡과 구로베 댐을 방문하며 풍요로운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W-AMP 23기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W-AMP 23기 원우의 밤”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일본 해외 세미나를 통해 W-AMP 23기 원우들간의 우의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 10월 27일(목) 오후 6시 30분, 국제관 5층 리셉션홀에서 2022학년도 최고경영자과정인 W-AMP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2022학년 23기 W-AMP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안희준 경영대학장, 오원석 W-AMP 특좌교수, 김종욱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이우현 총동문회 회장, 총동문회 임원 등을 비롯하여 내외贵宾들이 참석하였다.

수료식은 내외빈 소개와 수료증 수여 및 공로상, 으뜸상, 우정상 시상식에 이어 안희준 학장의 축사, 오원석 주임교수의 축사, 이우현 총동문회장의 격려사, 조성용 원우회장의 답사로 진행되었다. 수료식 2부 순서로 만찬을 즐기며 23기 원우들의 소감을 함께 나누고 총동문회와 동호회를 소개하여 원우들과 동문간 친목 도모를 하며 뜻 깊은 수료의 시간을 가졌다.

W-AMP는 Wisdom Management, Wealth Management, Well-being Management의 3W를 상징하는 W-AMP(최고

경영자과정)은 성균관대의 대표적인 CEO 과정으로, 성균관대 624년 역사에 기반한 인문학적 자산을 전달하고 동양철학과 역사·문화·예술에 바탕을 둔 창의적 경영마인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의 최근 사회/문화적 이슈를 다루는 차별화된 경영인 프로그램이다. W-AMP 과정, 입학문의 등 궁금한 사항은 W-AMP 지원실(02-760-0300)로 문의하면 된다.



W-AMP 총동문회 총회 및 한문철 신입회장 취임식 개최

지난 12월 12일(월) 동문 및 내외贵宾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W-AMP 총동문회 총회 및 송년회가 삼성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총회, 2부 송년회 및 만찬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차기 총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된 한문철 회장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W-AMP 총동문회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안희준 경영대학장과 오원석 W-AMP 특좌교수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문철 차기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더욱더 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 W-AMP와 동문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쓰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였다.



송교직 교수, <디파이(DeFi)와 금융의 미래> 출간



본교 BK21 핀테크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단장인 송교직 교수가 최근 번역서 “디파이(DeFi)와 금융의 미래”를 출간



하였다. 송교수는 세계 최고의 재무/금융분야 연구자인 Campbell Harvey (Duke대학 교수) 등이 2021년 디파



이의 발전 전망에 대해 저술한 책을 Harvey 교수의 요청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송교수는 “이 책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의 기회와 위험에 대해 분석하였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읽어볼 만하다”고 말하였다.

[Research Stories]

오종민 교수, CEO와 기업간의 기술 적합성과 CEO 노동시장



- 최고경영자(CEO)의 경쟁력 있는 보수 책정에 있어서 CEO가 보유한 특정 기술에 대한 전문성의 중요성
- 재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저널인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게재

유능한 CEO를 고용하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요인이 있

겠으나 경쟁력 있는 보수를 제안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매력적인 ‘시장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업은 대개 경쟁사의 CEO 보수 수준을 참고하곤 한다. CEO 보수 벤치마킹(CEO compensation benchmarking)은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CEO의 주변 외부옵션을 고려함으로써 그 CEO에게 적절한 시장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벤치마킹 대상 선정의 고려사항은 크게 두가지였다. 동일 산업군에 속하거나 시가총액 등이 유사한 규모의 기업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벤치마킹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이를 CEO의 자기본위(self-serving) 행위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고용하는 CEO를 보면 이런 해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슈퍼카 브랜드로 잘 알려진 페라리(Ferrari NV)는 작년 여름 베네데토 비냐 (Benedetto Vigna)를 CEO로 영입한 이유로 최근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주요 기술에 대한 그의 전문성을 꼽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CEO의 기술적인 배경(technological background)이 과연 시장에서 CEO 영입을 위한 회사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CEO 보수 책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기술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technological expertise)을 가진 CEO를 선호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CEO들은 재임 기간 동

안 기업이 보유한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해당 기술 관련 전반적인 전문성을 축적하게 되곤 한다. CEO의 기술적 전문성이 현재 몸담은 기업은 물론 해당 특정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타 기업에게도 중요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CEO 고용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의 책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본 연구팀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이 CEO 보수 책정을 위해 벤치마킹 피어 그룹(peer group)을 형성할 때에 과연 유사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회사들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강한 지 실증분석하였다. 만약 특정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CEO 선택의 주요 요소라면 CEO 보수 벤치마킹을 위해 선정한 피어 그룹에 해당 기업과 유사한 기술에 주력하는 회사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 연구팀은 판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CEO 보수 벤치마킹을 위해 선정하는 피어 그룹에 자사와 비슷한 분야의 기술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주로 포함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기업의 CEO는 이렇게 형성된 유사한 기술에 주력하는 벤치마킹 피어 그룹(technologically similar peer group) CEO와 근접한 수준의 경쟁력 있는 보수(competitive pay)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EO가 이직 시 기술 수요가 기존 회사와 유사한 곳으로 옮겨 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치마킹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선행 연구에서 강조한 동일 산업군에 속한 기업 또는 유사한 규모의 기업과 함께 기술적으로 유사한 기업(technologically similar firms) 또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CEO와 기업 간 기술적 적합성(technological fit)이 CEO 고용시장에서 효율적 임금수준의 중요한 결정요소임을 잘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으로 전통적인 산업 간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는 등 혁신적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CEO의 특정 기술에 대한 전

문성을 바탕으로 CEO와 기업간의 기술 적합성에 따라 CEO 고용시장에서 결정된 보수가 효율적 계약(efficient contracting)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2022년에 재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저널인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에 게재되었으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doi.org/10.1017/S0022109022000229>

출처: 성균관대학교 Research Stories



백태영 교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초대위원 선임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재단이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초대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5일 밝혔다. ISSB는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IFRS재단이 설립한 독립된 기준제정 기구다. 위원 수는 총 14명이다.

백 선임 위원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 교수를 지내면서 행정안전부 재무회계선진화 위원,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심

의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백 위원은 3년간 ISSB에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백 위원 선임은 그동안 한국이 IFRS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형성한 국제적 인지도와 공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5033800002?input=1195m>

1. 초대위원으로 선임된 소감 한마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공시를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산하 신설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전세계 총 14명의 위원의 한 명으로 선임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계에도 지속가능성(ESG) 공시의 중요성이 매우 빠르고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인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ISSB 전업 근무를 하게 되어 교수로서의 긴 생활은 조금 일찍 마무리되어 아쉽지만 인생의 새로운 도전 의식과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2.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

ISSB 위원은 크게 총괄, 미주,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아프리카의 4 가지 지역 기반으로 분류되는 데 저는 중국, 일본 대표와 함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을 대표합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전반에 ISSB 공시기준을 알리고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현재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처음 두 가지 기준의 제정 과정과 앞으로의 기준 제정 과정에도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 기준의 영향이 상당하므로 기업들에게 기준 도입의 혜택과 함께 도입 부담의 완화 방법 등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많은 논의를 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상석 교수,

연구논문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게재 관련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유상석 교수님, 본인 소개와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전공 유상석입니다. 저는 경영 환경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비롯한 지능형 에이전트를 활용해 업무 성과를 높이고, 그러한 기술들을 매개로 한 효과적인 직원 간 협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고객 응대 서비스 개선 방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연구한 논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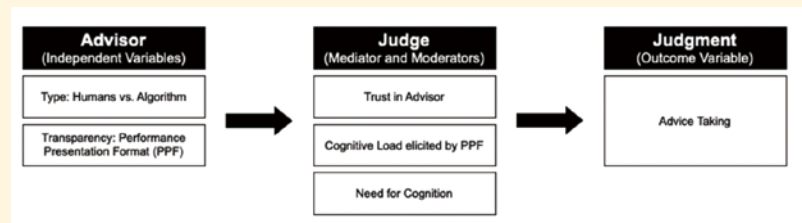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Algorithmic versus Human Advice: Does Presenting Prediction Performance Matter for Algorithm Appreciation?”으로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알고리즘이 추천한 결과가 이용자에게 이해되고 신뢰를 받는 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많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제 다른 연구 분야인 로봇과의 협동이 주로 물리적 노동에 관한 것에 비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과의 협동은 지식 노동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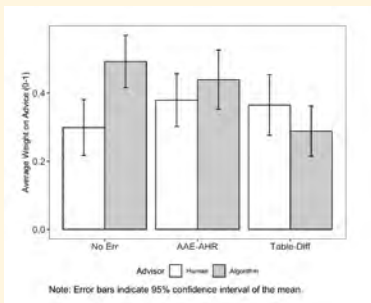
Q 논문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 논문에서는 algorithm appreciation이라고 불리는, 이용자들이 포괄적으로 알고리즘의 추천을 자신 혹은 타인의 추천보다 선호한다는 현상에 착안하였습니다. 저와 공저자들은 이 포괄적 알고리즘 선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론적 틀을 구상하고 5번의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추천자, 이용자를 판단자, 그리고 이용자의 알고리즘 추천 내용을 고려한 최종 판단 내용을 결과로 하는 이론적 틀로, 향후 알고리즘을 이용한 의사결정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Figure 1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적 틀〉

앞서 말한 것처럼, 5번의 실험에서는 알고리즘이 추천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도, 이용자의 인지적 부하와 기질적 인지 욕구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연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추천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경우, 이용자들의 알고리즘 추천 의존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추천 오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요약 정보만 공개한 경우는 신뢰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세부 오류 내용을 공개한 경우 신뢰도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용자들은 사람의 추천 오류 정보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알고리즘의 오류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Figure 2 알고리즘 추천 오류 정보 공개 방식에 따른 이용자의 추천 의존도 변화〉

(No Err: 비공개, AAE-AHR: 요약 공개, Table-Diff: 상세 오류 내용 공개)

Q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모든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겠지만, 5번의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실험에 사용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훈련시키는 등의 기술적 과정과 연구 가설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타당한 실험 환경을 만드는 논리적 과정에 많은 시행 착오와 수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



게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연구 문제의 중요성과 이론적 함의를 명료한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도 연구진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었습니다.

Q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활용한 협동에 관한 연구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도 제 바람 중 하나입니다.

김영상 교수,

미국경영학회(AOM, Academy of Management) 학술공로상(Scholarly Achievement Award) 수상



경영대학 김영상(매니지먼트 전공) 교수는 미국경영학회(AOM)에서 수여하는 인사관리 분과(HR Division) 학술공로상(Scholarly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매년 학문적 우수성과 성취도가 가장 높은 논문의 저자들에게 수여되는 학술공로상은 개념

적/경험적 이론의 발전, 새로운 지식 창출, 실무적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둔 논문의 저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경영학회(AOM)에서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pplicant race and accrued recruitment source information: Implications for applicant withdrawal and test performance」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논문은 기업 지원자들이 구직 정보(연봉, 기업 문화, 채용 프로세스 등)를 활용 시, 사회적/인종적 다수자와 소수자 그룹에 따라 구직 정보 출처들(공식적인 구직 광고, 홈페이지 정보, 기업내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의 활용(Accrued recruitment source diagnosticity)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에 따른 지원자의 채용 성과(지원자의 조직에 대한 매력도, 지원 철회, 선발과정시 지원자의 선발 시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론화하였고, 미국 소방관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사관리 연구에서 인재

모집 (Recruiting) 및 선발 (Selection) 문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김교수는 “AOM 학회에서 학술 공로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 더 좋은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하였으며, “이 논문 발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1936년에 설립되어 경영진 및 조직의 학자들을 위한 전문 협회인 미국경영학회(AOM)은 ‘경영학의 구루’라 불리는

마이클 포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를 비롯하여 세계에 약 2만 명의 경영학도를 회원으로 보유한 세계 최대의 경영학 학술단체이다. 경영학 분야 중 인사/조직/전략/국제 경영/기술 경영/창업론 등 매니지먼트 분야의 학자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8월에 북미에서 연례학술대회가 열리며 전 세계에서 1만 2천여명 정도의 경영학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한상만 교수, 대통령직속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위촉



경영대학 한상만 교수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공정과 상생 강화를 위한 갈등과제 관리와 대안 제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한정화 특위 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

가들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약 100일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대·중소기업상생특위의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금 여력을 제고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를 구상할 계획이다.

조셉킴 교수(Biz Communication 전공), 아리랑TV 전문가 패널 출연



조셉킴 교수(Biz Communication 전공)는 지난 10월 20일 아리랑TV에 출연하여 BEST PLACE TO WORK, GEN Z WORKERS, DIGITAL COMMUTING, SMEs IN KOREA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3년 연속 포브스 선정 관련하여 세계 최고의 직장?〉에 대하여 "삼성 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며, "예를 들어 해외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을 위해 영어 교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비언어적 소통이나 스토리

텔링 기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자산은 큰 R&D 지출에 있다. 이런 R&D 비용의 지출은 직원들로 하여금 삼성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해오던 것만을 반복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젊은 세대의 근로자들은 사무실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팬데믹 이후 많은 대기업의 융통성에 변화가 일어났다.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있다. 또, 기업 카카오의 경우 임직원들끼리 서로 영어 닉네임을 사용하여 부른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위계적인 한국어보다 수평적인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직장 내 위계질서를 완화하고 직원들에게 편안한 업무 분위기를 제공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인터뷰는 아리랑TV 유튜브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경영대학은 핵심가치인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성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학년도 2학기, 뛰어난 역량을 갖춘 신입교원 1명(회계 전공)을 초빙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경영대학 가족이 된 신입교원인 <회계 전공>의 '최아름 교수'를 만나 '주요 연구활동, 전공,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세요!

최아름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학기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회계학 전공으로 부임한 최아름입니다. 저는 회계학(회계 감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Hong Kong Baptist University에서 6년간 일을 하다가 이번 학기에 성균관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 뵈게 되어 모두 반갑습니다.

전공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경영학 내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기업은 재무상태나 재무성과 등을 재무제표라는 양식을 통해서 공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과목이 회계학입니다. 학부 때 다양한 전공 과목의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회계학이라고 하면 다소 지루하고 기술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던 저의 고정관념을 확 바꿔준 수

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에 흥미를 느껴 계속 회계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회계학 관련 직업은 미래에는 AI로 대체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계의 일부분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어느 정도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는 재무제표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해석 및 판단을 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AI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회계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성균관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직 학교로 출근한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학교로 출근하는 매일매일 좋은 기억들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사람들과 교류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더 완화되어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맡은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부 수업으로는 회계원리, 대학원 수업으로는

회계감사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 수업을 맡았습니다. 회계원리는 회계학의 가장 기초 과목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해석을 다룰 계획입니다. 첫 학부 수업을 해 보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대학원 수업은 회계감사와 관련한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대형회계법인이 과연 더 좋은가? 규제 당국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최근 한국에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AI로 인해 감사인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회계학 내에서도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 왔습니다. 감사인의 역할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인의 본래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사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지, 자본 시장에서 감사인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계학과 접목시켜서 연구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비재무적 성과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보고서에는 어떤 정보들이 유용한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적인 교육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교육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제가 주로 가르치게 될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를 생각해보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지만,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위해서는 회계학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우선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다양한 기회들을 찾아서 가능하다면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 이를 잘 준비하여 쟁취할 수 있도록 알찬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동문회소식



윤종규(경영75) KB금융그룹 회장, 한국경영학회 '경영자 대상' 수상



윤종규(경영75) KB금융그룹 회장이 8월 18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한국경영학회 하계 융합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윤 회장은 진취적 기업가정신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건실한 발전을 이끌고 국가 경제 성장에 공헌한 기업인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은 것이다.

경영자대상선정위원회는 윤회장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확산시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KB금융은 2020년 10월 '탈석탄 금융' 선언, 지난해 6월 자산 포트폴리오 내 탄소배출량을 공개하는 등 한국 금융사들 중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ESG 경영 중장기 로드맵인 'KB 그린 웨이브 2030'에서 KB금융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20년 대비 42% 감축하고 현재 25조원 규모인

'ESG 상품·투자·대출'을 5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는 우리대학 한상만 교수(마케팅 전공)가 제67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있다. 내용출처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https://www.cstimes.com>)

박성준(글경 08학번)동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교수 임용 관련 인터뷰



우리 대학 글로벌경영학과 08학번 박성준 동문이 현재 타이페이에 위치한 국립정치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강의 교과목으로 학부와 MBA 학생들에게 마케팅 원론(Marketing Management)과 시장조사론(Marketing Research)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수업으로 연구방법론(Quant Research Method)과 마케팅 세미나 수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마케팅전략팀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는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한 국립정치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강의 교과목으로 학부와 MBA 학생들에게 마케팅 원론(Marketing Management)과 시장조사론(Marketing Research)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수업으로 연구방법론(Quant Research Method)과 마케팅 세미나 수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National Chengchi University에서 마케팅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임용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원하게 된 계기,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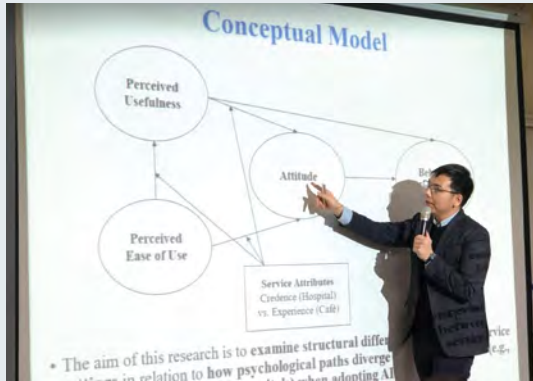
대학원 재학 시절 박사 과정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만나 지식을 전하는 일에 큰 의미를 느꼈지만 실무 경험 없이 경영학을 강의하는 바에 한계를 체감하였습니다. 이에 박사 학위를 마치고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체험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지만, 교육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대학에 교수 임용을 도전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이은주 교수의 뉴로마케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마케팅 연구에 대한 흥미를 처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모교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미소가 그려질만큼 캠퍼스에 대한 추억이 가득하다는 박성준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경영 1기 08학번 졸업생 박성준입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타이페이에 위치한 국립정치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4년차로 재직 중이며, 대만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과 만날 수 있어 매 수업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강의 준비를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강의에도 차질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그 곳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극복하였나요?

제 수업 방식은 경험을 통한 습득(Experiential Learning)과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토론 위주의 수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오프라인 수업과 병행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의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의 온라인 시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배운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매출을 창출하는 경험을 쌓게 하였습니다.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과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지식의 섭광이 부딪히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학부시절때 참여했던 기억에 남는 교내·외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08학번으로 글경 1기로 입학 했기에 대부분 학과 활동은 전무후무한 초기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 활동은 크리스천 동기들과 함께 만든 글로벌 경영학과 기도모임입니다. 주기적으로 만나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함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조명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에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만난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으며, 제 학부 생활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의미가 있던 교내 활동은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입니다. 당시 이은주 교수님의 뉴로마케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마케팅 연구의 흥미를 처음 느끼게 되었고 현재 제가 마케팅 연구자로 성장하는데 첫 디딤돌이 된 활동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알게 해주신 스승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학부 때 참여했던 연구 활동이 제 진로 결정에 큰 역할이 되었기에 현재 저도 다수의 학부생 연구 조교를 선발하여 학생들에게 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교외 활동은 학부 때 참가한 제일기획 마케팅 공모전입니다. 당시 동기 3명과 함께 국제관 세미나실에서 몇 주 동안 늦은 밤까지 준비를 하며 삼성전자 모바일 캠페인 전략을 구축하였고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의 날카로운 평가와 함께 학부 때 배운 지식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인상적인 교외 활동은 美 MIT 미디어 랩 대학원분들과 함께 작업한 경험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니즈를 탐색하고 어떻게 service design을 도출할 수 있는지 모색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디지털 제품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IoT 서비스를 위한 컨트롤러 모형을 제작하였고, 대학로에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사과정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학원 진학에 대한 진로를 더욱 견고히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성과나 저명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주세요.

소비자와 디지털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현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광고가 제시가 될 때 소비자는 모바일 앱(App) 또는 모바일 웹 사이트(Website)를 통해 광고를 대면하게 됩니다. 모바일의 두 광고 경로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SSCI) 저널에 2020년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때 병원과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다른 기술 수용 과정이 발생하는지 살펴본 연구가 Psychology & Marketing (SSCI) 저널에 2021년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text-mining 기법으로 소비자가 웹 사이트에 남긴 리뷰를 분석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룹과 제2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그룹을 비교하여 언어 사용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평가를 살펴본 연구가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SSCI) 저널에 최근 게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AI 챗봇(Chatbot) 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 문헌 분석을 하는 메타(Meta)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간의 창의성 및 감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소비자가 신기술을 대할 때 어떻게 인지적으로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체험하는지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기업의 매출과 연계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모교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은가요?

모교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미소가 그려집니다. 캠퍼스에서 젊은 날 많은 추억들이 함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교에 방문을 한다면 국제관 세미나실에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1학년 때는 국제관이 아직 완공 이전이었고, 2학년 때부터 모든 수업이 국제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국제관 세미나실에 살다시피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3학년 때 I-core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같은 팀원 친구들이 밤을 꼬박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도서관 쪽문에 위치한 분식집도 가보고 싶습니다. 포스트잇에 제 동기들과 함께 적은 노트가 벽에 붙여 놓았는데 아직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전을 멈추고 포기하면 때가 이렀을 때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졸업 이후의 진로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함께 공존하기에 미래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도전해 보면서 조금씩 전진해 나아가는 후배님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송은영(글경 10학번)동문,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교수 임용 관련 인터뷰



우리 대학 글로벌경영학과 10학번 송은영 동문이 현재 홍콩시티대학교에서 마케팅 소비심리 전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송은영 동문은 롤모델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데 도움

을 주고, 그 사람도 해냈으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케팅, 그 중에서도 소비심리 (Consumer Behavior) 세부 전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 특히 스마트폰이나 알고리즘의 사용이 어떻게 사람들의 소비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City Univ. of Hong Kong에서 마케팅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임용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원하게 된 계기,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홍콩의 대학들은 모두 공립이라,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매우 풍족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워 가족들 친구들과 더 자주 왕래할 수 있다는 점에도 매력을 느껴 홍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임용되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박사 생활을 마무리할 때 즈음, “job market”이라는 컨퍼런스 형식의 큰 이벤트에 참여하여 2번의 인터뷰를 거친 뒤 합격하게 됩니다. 기업의 공채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job market”이 열리면,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하는 것처럼, 연구하고 있는 논문들과 앞으로 어떤 연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지원서 패키지를 만들어 여러 학교들에 지원합니다. 그 뒤 추려진 합격자들은 1차 인터뷰를 치르게 되는데, 1차 인터뷰는 주로 1대1 면접으로 20~30분 동안 자기 소개와 연구 주제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그 뒤 또 추려진 합격자들이 2차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2차 인터뷰 때는 통상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해당 학교 방문을 하는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 zoom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하루~이틀 내내 해당 학교 교수들과 1대1 인터뷰를 하고, 1시간 30분~2시간 정도 논문 발표를 하고, 학장 (dean), 교무처장 (provost) 등 교수 채용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의 행정 요직에 있으신 분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직접 학교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스케줄이 끝난 저녁에는 파티에 참석해 학과 교수들과 더욱 긴밀하고 개인적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학교 측에서 회의와 투표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강의에도 차질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홍콩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극복하셨나요?

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사실 저보다는 학생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수업은 Business Case Analysis and Communication이라는 과목이어서, 그야말로 “communication”이 필수인데,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수업 시간 외에 학생들과 소규모로 zoom 미팅을 자주 가지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성과나 저명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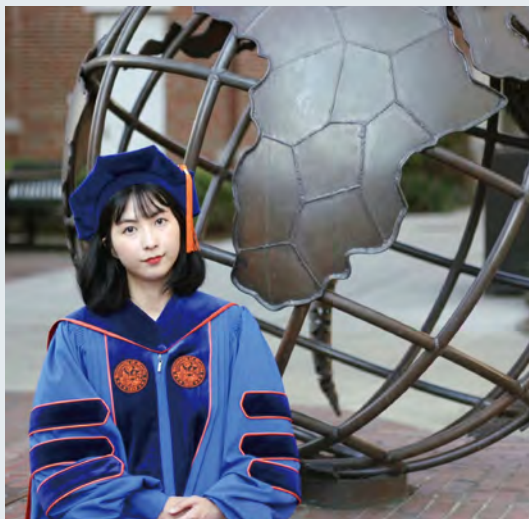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저희 분야 탐저널인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에 “Phone and Self: How Smartphone Use Increases the Preference for Uniqueness”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경우, 일반적인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 비해, 자기 개성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단 소비 행동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어떻게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시절에 참여했던 기억에 남는 교내·외 활동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학부 시절에 학점이 엄청 좋거나 교내·외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학업이나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는 않았고, 패션쪽에 관심이 많아 그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하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학년 1학기에 들었던 마케팅 수업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 학부생일 때 RA(research assistant)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덕분에 석사를 하지 않고 바로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RA를 하며 연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고, 교수라는 커리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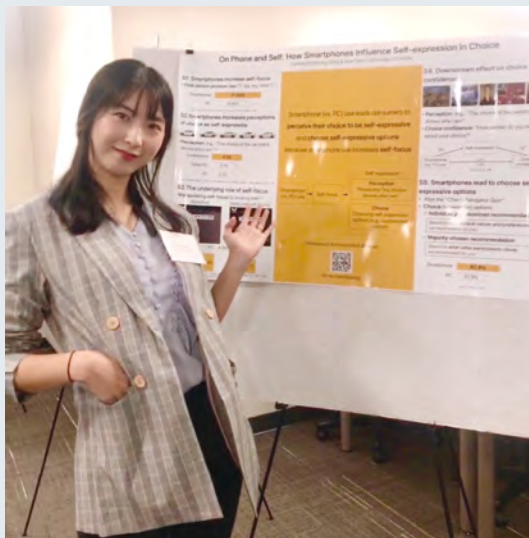


모교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은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번 초여름에 성대를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제가 좋아하고 자주 다녔던 가게들이 모두 없어졌더라고요. 흑흑... 정문 앞에 있던 정말 작은 “홀릭”이라는 커피 테이크아웃 전문점과 “람블라스”라는 맛있는 케이크를 직접 구워 팔던 카페를 좋아했는데, 둘 다 망했는지 사라지고 없었어요..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을 법한 곳을 추천하자면... 음.. 교수회관의 와플...? 점심 먹고 와플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롤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롤모델은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사람도 해냈으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롤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도 자기만의 롤모델을 찾고 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부금 소식



김원갑 동문(경영72), 제2경영관건립기금 누적 3억원 기부



김원갑 부회장(경영72, ㈜현대코퍼레이션/(주)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7월 12일(화) 총장실을 방문하여 「제2경영관건립기금」 누적액 3억 원(금번 기부액 4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기금전달식에는 신동렬 총장, 주영수 상임이사, 조준모 (인) 부총장, 박선규 (자)부총장, 이동환 법인국장, 안희준 경영대학장, 지성우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하였으며, 경영대학동문회에서 김동필 (주)넥스팜코리아 회장이자 경영대학동문회장, 김익래 선명회계법인 회장, 이현구 (주)라까사웍스 회장,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사장, 전용주 현대회계사무소/(주)해시스넵 회장, 이증상 경영대학동문회 사무총장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신동렬 총장은 환영사에서 “모교와 경영대학을 위해서 2009년부터 13년간 건립기금 3억 원의 거액을 기부해 주

신 김원갑 부회장의 큰 뜻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장의 모교사랑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영대 동문분들의 뜻을 받들어 제2경영관을 잘 짓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원갑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2009년 김익래 경영대학동문회장의 50주년 기념행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13년간 학교와 재단의 노력으로 우리대학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동문들의 호응이 좋아 기부 독려도 많이 한다. 현대 입사가 44년이 되었지만,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마음속 기부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고, 경영대학에 장학금 외에도 별도의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갑 부회장은 제2경영관건립기금 3억 원을 포함, 총 누적기부액이 약 4억 원에 이른다.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전달식 개최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김진기)가 19일(수) 총장실을 방문해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4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가 2009년부터 후배사랑을 위해 뜻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장학금으로 원활한 기금운용은 물론 기부진흥과 기금확대를 위해 대학에 위탁하게 된 것이다.

기금전달식에는 신동렬 총장, 주영수 상임이사, 조준모 (인)부총장, 박선규 (자)부총장, 이동환 법민국장, 안희준 경영대학장, 지성우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으며,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에서는 김진기 회장(㈜세지 대표이사), 오유식 명예회장(터내셔널 대(주)한나인포이서), 이우현 고문(주)컴앤에스 대표이사), 전용주 총괄수석부회장(주)해시스넵/현대회계사무소 회장), 사동선 사무총장(고저스 대표)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신동렬 총장은 환영사에서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의 모교사랑과 후배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영인의 숙원인 제2경영관이 올해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영대학 동문분들의 보다 큰 관심과 기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기 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좋은 날씨에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학교에 장학기금을 위탁하는 뜻 깊은 자리에 초

청해줘서 감사하다. 과거 형편이 어려워 뒤늦게 공부하면서도 늘 사회기여를 생각해서 학교에 몇 천만 원 기부했거나 더욱 열심히 기부해서 1억에 맞춰보겠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부로 가계곤란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유식 명예회장은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앞으로도 학교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현 고문은 “총장께서 경영대학을 비롯한 인문계열의 교수연구비 부족을 말씀하셔서 회사를 통한 연구비지원의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10년 회장의 경력을 살려 누구든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전용주 총괄수석부회장은 “그동안 희생적으로 노력해오신 이우현 회장님께 감사하다. 오늘 우리의 숙원인 기금의 학교위탁관리가 해결됨으로써 김진기 회장님의 결단이 결실을 맺게 되어 무척 기쁘다. 더 많은 기부를 독려하고 참여하겠다. 또한, 앞으로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으로 충분히 충당된다고 하니 교수연구기금과 학교발전기금의 확대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s://www.lecturernews.com>)



이우현 회장, 컴앤에스 학술연구기금 연간 2천만원 기부



이우현 회장(㈜컴앤에스 대표이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 및 마케팅분야 박사)이 경영대학 교수 연구력 증진을 돕

기 위해 연간 2천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에 경영대학 학장실을 방문하여 경영대학 교원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학술연구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이우현 회장은 “경영대학 교수진들이 보다 나은 연구환경에서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연구를 지속하고 경영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컴앤에스 학술연구비는 매년 2개 과제를 선정하여 홀수년(재무금융, 회계전공), 짝수년(경영정보, 마케팅, 매니지먼트전공)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경영전문대학원총동문회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1억8,950만원 기부



김진기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2,900만원 기부



오유식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2,500만원 기부



이용국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3,500만원 기부



이우현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5천만원 기부



이윤재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1,500만원 기부



이재범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1천만원 기부



전용주
경영전문대학원장학기금
2,500만원 기부



김관영
제2경영관건립기금
1천만원 기부



김교태
제2경영관건립기금
3천만원 기부



김원갑
제2경영관건립기금 4천만원 기부 &
경영대학장학기금 750만원 기부



원기찬
제2경영관건립기금
3천만원 기부



최운호
제2경영관건립기금
1천만원 기부



차동욱
경영대학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현재 경영대학 동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금 납부자(900만원 이하, 가나다순) : 강한윤, 강환구, 김도현, 김정순, 김정열, 김홍운, 김화섭, 류시원, 류환열, 박남수, 박성만, 박영규, 신영석, 오준환, 이상호, 이윤숙, 전시현, 정영화, 채희선, 최관, 황영순

〈2022년 6월 28일~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illegible]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하신 기부금 전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대외협력팀(Tel.: 02-760-1159 Fax: 02-760-1158 E-mail: fund@skku.edu)

위와 같이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기부(약정)자 성명 : (인)

성균관대학교 총장 귀하



SKK BUSINESS SCHOOL

VISION 2030

GLOBAL INNOVATIVE LEADING
BUSINESS SCHOOL

50th
GLOBAL

20th
ASIA

1st
KOREA

MISSION



Student Success with AI Interdisciplinary Talents

- Python Coding / AI
- Global Experience with Exchange & Internship
- Capstone Projects / I-core Courses



R&D for Management Knowledge

- Cross Management
- Global Collaboration
-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olve Management Problems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http://biz.skku.edu>